



#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바로사 가스전 FPSO 설비에  
금융 제공 중인 은행들

**저자**

오동재  
김소민

**도움주신 분**

Yuki Tanabe  
Nikki Reisch  
Upasana Khatri  
Sonja Meister  
Naish Gawen  
Lucie Pinson  
한수연  
고동현  
박주영  
김민지  
이진선  
김주진

**발간일**

2023년 4월

**공동 발간**



**연명 단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바로사 가스전 FPSO 설비에  
금융 제공 중인 은행들

## 들어가며

- 바로사(Barossa) 가스전 개발 사업의 환경 규제 리스크와 위장환경주의('그린워싱') 논란이 현실화함에 따라 사업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음. 호주와 동아시아의 에너지 기업(Santos, SK E&S, JERA)이 주도하고 있는 호주 바로사 가스전 사업은 호주 북부 티모르해 연안에 위치한 석유·가스 생산 프로젝트임. 그러나 사업은 최종 투자 결정(FID) 이후 호주 연방법원의 판결로 시추 승인이 무효화 됨에 따라 중단된 상황임.
- 바로사 가스전은 그간 화석연료 산업이 경시했던 현지 원주민들의 권리 침해 문제와 함께 그린워싱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상징적인 사업임.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신규 화석연료 투자 중단을 약속하는 현시점에서 본 브리프는 해당 사업에 금융을 제공한 금융기관들의 문제점과 함께 대안을 제안하기 위해 발간되었음.

### 호주 바로사 가스전 사업, 현실화한 우려

- **(사업 인허가 논란)** 2022년 9월, 호주 연방 법원은 바로사 가스전의 시추 인허가가 위법하게 이뤄졌으며, 따라서 시추도 중단되어야 한다고 판결함. 2022년 12월, 호주 연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결정을 지지하여 바로사 가스전 프로젝트의 주요 인허가인 시추 인허가를 최종 무효로 하였음. 이후 규제당국인 호주 해안석유안전 환경청(NOPSEMA)이 사업의 다른 인허가 건에 대해서도 시정명령(General Direction)을 내려 2023년 1월 착공 예정이던 가스관 건설마저 연기되고 있음.
- **(그린워싱 논란)** 사업 추진과정에서 SK E&S 측은 'CO<sub>2</sub>-free LNG' 생산 등 바로사 가스전 사업이 기후위기 대응에 부합한다는 내용을 강조하는 홍보를 진행함. 하지만 해당 광고는 사업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왜곡시키는 '그린워싱'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한국 환경부로부터 행정권고를 받았으며 2022년 9월 결국 수정된 바 있음. 사업자 측 주장의 주요 논거가 되었던 탄소 포집 및 저장(CCS) 사업도 연기되며 '그린워싱' 논란은 줄어들지 않고 있음.

### 가스전 사업 뒤의 금융기관

- 바로사 가스전 사업의 추진 뒤엔 이를 가능케 한 금융기관들의 자금 지원이 있었음. 한국과 일본의 수출신용 기구인 한국수출입은행(KEXIM),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은 바로사 가스전 사업 개발에 약 1조 3천억 원에 달하는 금융지원을 결정한 바 있음. 이후 갖은 논란에도 금융지원을 철회하지 않아 국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비판받고 있음.
- 상기 한·일의 공적금융기관들 이외에 바로사 가스전 사업에 금융을 제공한 기관들에 대한 정보는 아직 공개된 바 없음. 이에 본 브리프를 통해 기후솔루션을 포함한 연대 기관들은 바로사 가스전 사업에 금융을 제공한 금융기관의 목록과 약정 금액을 추가적으로 공개함.
- 대한민국 국회 정무위원회 강병원 의원에 따르면 바로사 가스전 사업의 핵심 해상 생산설비인 부유식 원유 생산·저장·하역설비(FPSO) 건조에 약 1조 3천억 원 규모의 금융이 별도로 조달되었으며, 대주단으로 한국산업은행(KDB), 일본 MUFG 은행, 싱가포르 UOB 은행 등 9개 금융기관이 참여한 것으로 밝혀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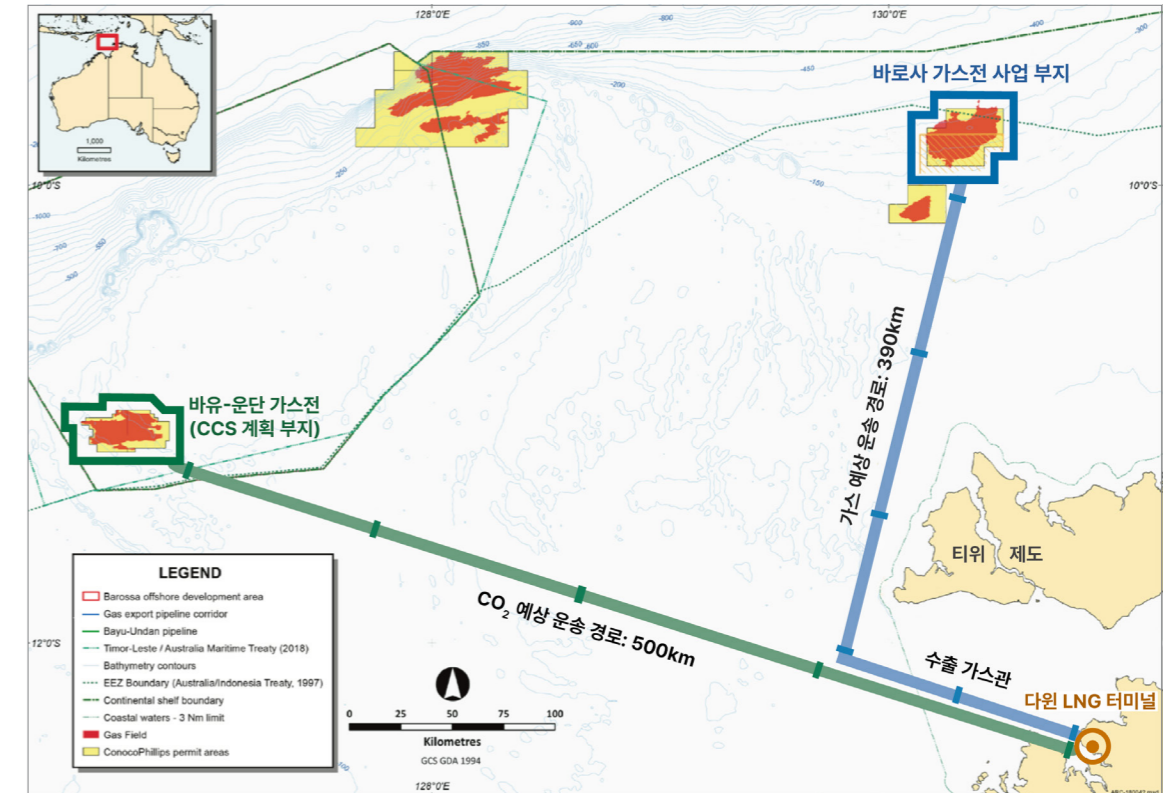
## I. 호주 바로사 가스전 사업 개요

### 1.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사업 부지	호주 북부 노던테리토리주 다윈시 북쪽 300km 지점 티모르(Timor) 해역
사업주	Santos(50%), SK E&S(37.5%), JERA(12.5%)
총 사업비(예정)	한화 7조 3,245억 원(USD 56 억) <sup>1</sup>
사업 기간(예정)	2025년~2045년
대주단 <sup>2</sup>	일본국제협력은행(JBIC): 한화 4,526억 원(USD 346 백만) 한국수출입은행(KEXIM): 한화 4,316억 원(USD 330백만)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한화 4,316억 원(USD 330백만) 상업은행(5개)
예상 생산량	LNG 연 350만 톤, 초경질원유 연 150만 배럴
국내 도입분	LNG 연 130만 톤(블루수소 연 25만톤 생산에 활용)

- 바로사 가스전은 호주 북부의 티모르 해역에서 진행 예정인 해상 가스전 사업으로, 생산된 가스는 액화천연 가스 (이하 "LNG") 정제를 위해 육상에 위치한 다윈 LNG 터미널 이동되며, 액화 이후 수출 예정임. 사업주 들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이하 "CO<sub>2</sub>")를 일부 포집 후 바유-운단(Bayu-Undan) 폐가스전에 저장하는 계획을 주장하고 있음. 한국 에너지 기업인 SK E&S는 이를 수입해 '블루수소'<sup>3</sup> 생산을 위한 원료로 2025년부터 활용할 예정.
- 해상에서 진행되는 가스전 사업 특성상 바로사 가스전 사업은 대형 해양플랜트인 부유식 원유 생산·저장·하역설비(이하 "FPSO") 설비 및 해저 생산설비, 육상 터미널 연결을 위한 가스관 건설이 필요함.
- 그중 FPSO 설비는 가스 생산과 정제가 이뤄지는 초대형 선박 구조물로, 바로사 가스전 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프로젝트 주요 설비임. 바로사 FPSO는 해운업체인 BW Offshore가 EPC/IO(설계, 조달, 시공, 설치 및 운영)계약을 수주하였고, 이미 별도 금융 조달이 이뤄진 후 현재 건조가 이뤄지고 있음.

[그림 1] 바로사 가스전 사업 개요도(출처: 코노코필립스 설명자료를 SFO°C가 재구성)



### 2. 사업 주요 연혁

2021년	3월	바로사 가스전 사업 최종 투자 결정(FID)
	5월	국제 시민단체, SK 그룹에 그린워싱·원주민 협의 부재 우려 서한 발송
	<b>8월</b>	<b>한국산업은행, FPSO 건조 대출(3,100억 원) 계약 체결</b>
	12월	일본국제협력은행, 금융지원 승인
2022년	12월	한국무역보험공사, 금융지원 승인
	3월	호주 원주민, 한국 법원 가처분 신청
	5월	한국수출입은행, 투자 승인
	6월	호주 현지 바로사 가스전 사업 인허가 취소 소송 제기
	9월	SK E&S, '그린워싱' 행정권고에 광고 수정
2023년	9월	호주 법원 판결로 시추 인허가 무효화
	12월	항소심 패소로 시추 인허가 최종 무효화
	1월	호주 규제당국, '가스관 인허가'에도 문제제기

## II. 바로사 가스전 및 FPSO 금융 제공 기관

- 신규 화석연료 개발 사업은 큰 사업 비용으로 인해 대규모 자금 조달이 필요하며, 이때 공적 금융기관을 포함한 민간 금융기관의 금융 제공이 이뤄짐. 신규 화석연료 사업 추진은 금융 조달이 이뤄지지 않으면 추진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화석연료 기업들만큼 금융기관들의 역할과 책임도 중요함.
- 본 브리프에서는 기존에 알려졌던 바로사 가스전 사업의 금융기관뿐 아니라, 사업의 생산 시설인 FPSO 선박의 건설이 시작될 수 있도록 자금을 조달한 금융기관의 목록을 공개함.

### 1. 바로사 가스전 사업 금융 지원 과정

- 바로사 가스전 사업의 개발자인 SK E&S, JERA 등은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한국과 일본의 수출신용기관으로부터 약 1조 3천억 원(USD 10억 1천만)의 금융지원 승인을 받았음([그림2]).
- 2021년 12월 일본국제협력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각각 4,526억 원(약 USD 3억 5천만)<sup>4</sup>과 4,316억 원(USD 3억 3천만)<sup>5</sup>의 금융지원을 승인함. 이때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제공한 금융 지원은 수출신용보험(Export Credit Insurance)으로, 이에 따라 5개의 민간 금융기관들이 대출 참여 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었음. 한국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승인(4,316억 원[USD 3억 3천만])은 2022년 5월에 이뤄졌음.<sup>6</sup>
- 한국과 일본 수출신용기관들의 금융 지원 승인 과정에서 호주 원주민과 현지 환경단체들은 사업자들이 현지 환경규제에서 규정한 적절한 협의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항의하였으나, 사업 투자 결정에 반영되지 않았음.<sup>7</sup>
- 결국 호주 원주민들은 호주 연방법원에 사업 인허가의 무효화를 요구하는 재판을 청구했고, 호주 연방법원 재판부는 사업 추진의 위법성을 인정해 2022년 9월 사업 인허가 무효화 판결을 내린 뒤, 사업은 무기한 연기되고 있음.
- 사업의 환경 규제 리스크가 현실화하며 사업이 연기됨에 따라 금융지원을 승인한 대주단의 금융계약 체결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sup>8</sup>
- 사업 추진의 위법성이 호주 법원에서 인정되었음에도 한국과 일본의 공적 금융기관들은 사업의 금융지원 의사를 철회하지 않고 있음. 한국의 무역보험공사는 지난 1월, 승인 기한이 만료되었음에도 이를 다시 연장하며 논란이 일기도 함.<sup>9</sup>

### 2. 바로사 FPSO 건조 금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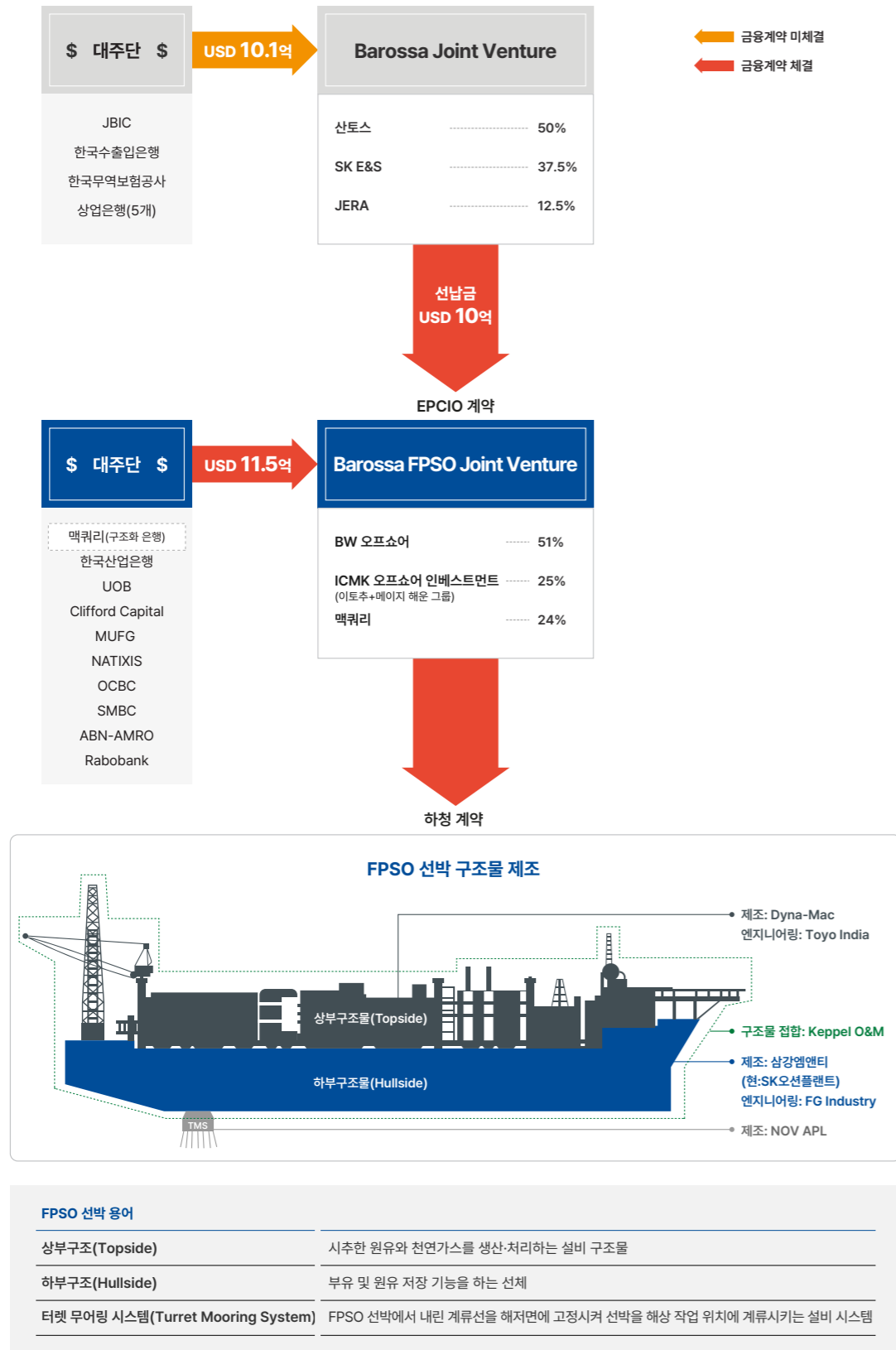
- 한편 사업주의 금융 조달 시도와는 별개로, 해상 생산 플랜트인 바로사 FPSO 선박 건조를 위한 별도 금융 조달 또한 해당 계약을 수주한 BW Offshore에 의해 이뤄짐. BW Offshore는 합작 투자(Joint Venture)와 대출을 통해 FPSO 건조를 위한 금융을 조달하였음.<sup>10</sup>
- FPSO 건조에 필요한 자본적 지출(CapEx)은 2조 7,879억 원(미화 24억 달러)로, 그중 1조 1,616억 원(10억 달러)은 사업주들로부터 선지급을 받았으며, 2,788억 원(2억 4천만 달러)은 자본금으로, 나머지 1조 3,358억 원(11억 5천만 달러)은 부채로 조달되었음.<sup>11</sup>
-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 바로사 FPSO 건조를 위해 9개의 금융기관들이 약 1조 3천억 원(11억 5천만 달러)의 금융을 제공하였으며<sup>12</sup>, 금융기관 중엔 한국의 공적 금융기관인 한국산업은행(약 2,904억 원)을 포함해 일본의 민간 금융기관(MUFG, SMBC 은행), 그리고 싱가포르와 유럽의 금융기관들도 다수 포함되어있음.<sup>13</sup>

[표 1] Barossa FPSO 금융 구조 및 약정 금액

금융 형태	참여 기관명	국적	금액 <sup>14</sup>
자본 총 2,788억 원 (USD 240백만)	BW Offshore(51%)	노르웨이	2,788억 원(USD 240백만)
	ICMK Offshore Investment(25%)	일본	
	Macquarie(24%)	호주	
부채 총 1조 3,358억 원 (USD 11.5억)	한국산업은행	한국	2,904억 원(USD 250백만)
	United Overseas Bank (UOB)	싱가포르	1,858억 원(USD 160백만)
	Clifford Capital	싱가포르	1,347억 원(USD 116백만)
	MUFG Bank	일본	1,347억 원(USD 116백만)
	Natixis	프랑스	1,347억 원(USD 116백만)
	Overseas-Chinese Banking Corporation (OCBC)	싱가포르	1,347억 원(USD 116백만)
	Sumitomo Mitsui Banking Corporation (SMBC)	일본	1,162억 원(USD 100백만)
	ABN Amro	네덜란드	1,115억 원(USD 96백만)
	Cooperative Rabobank	네덜란드	930억 원(USD 80백만)

\* Macquarie 은행은 구조화 은행으로서 대주단에도 참여 중인 것으로 알려짐

[그림 2] 바로사 가스전 및 FPSO 건조 금융 구조도



### III. 바로사 가스전 사업을 둘러싼 우려

• 지난 해 9월 사업의 시추 인허가가 무효로 돌아간 이후, 6개월 넘는 기간 동안 사업은 사실상 중단된 상황임. 가스관 건설도 계획대로 시작되지 않았으며 현재 보류됨. 사업이 무기한 연기됨에 따라 바로사 가스전 사업과 관련해 여러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음.

#### 1. '저탄소 가스전 2025년 상반기 가동' 목표 지연 우려

• 사업자들은 'CO<sub>2</sub>를 제거한 LNG'를 2025년 상반기부터 생산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으며<sup>15</sup> 지금도 여전히 목표 시점 가스전 가동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임.<sup>16</sup> 그러나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는 논란들에 비춰보았을 때, 기존 사업 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생겼음은 자명해 보임.

• **(인허가 리스크 확산)** 호주 연방법원의 항소심 판결에 따라 최종적으로 사업 인허가가 무효가 된 이후,<sup>17</sup> 사업의 부족한 협의 절차로 인한 규제 리스크는 기존에 사업자들이 취득한 다른 인허가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함. 사업의 가스관 설치 인허가와 관련해 호주 해안석유안전 환경청(이하 "NOPSEMA")은 사업 진행이 원주민 해저 문화유산에 영향을 미치지지에 대한 평가 작업을 진행해 제출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음.<sup>18</sup> 이에 따라 산토스는 독립적인 전문가를 고용해 평가를 수행해야 하며, 가스관 설치 작업은 무기한 보류된 상태임.

• 엇친 데 덮친 격으로 2023년 2월 호주 상원 의회 회계감사 청문회에서는 산토스가 다른 지역 원유 누출 사고로 인한 돌고래 폐사 등의 피해를 은폐했다는 내부고발자 증언이 나왔으며, 바로사 가스전의 가스관 사업의 신뢰도에도 큰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sup>19</sup>

• **(연기된 CCS 사업)** '저탄소 가스전'에 대한 사업자들 주장의 핵심 요소인 탄소 포집 및 저장(이하 "CCS") 사업도 2025년 이후로 미뤄 짐. 산토스사는 한-일 공적 금융의 지원 승인이 이뤄지자마자 발간한 '2022 기후 대응보고서('22.03)'에서 바로사 가스전 사업 CCS의 최종 투자 결정(FID)은 2025년이나 예정되어 있으며, 가동은 2027년부터 가능할 것이라고 밝히며 기존에 공언했던 시점을 미룬 바 있음.<sup>20</sup>

• **(전문가 및 규제당국 발언)** 관련해 사업의 연기를 시사하는 발언이나 의견들도 포착되고 있음.

◦ 항소심 판결 직전(2022년 12월 1일), 글로벌 투자은행 크레딧 스위스(Credit Suisse)는 "항소심에서도 산토스(Santos)가 패할 경우, 신규 환경계획(EP) 작업은 5~18개월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음.<sup>21</sup>

◦ 최근 진행된 호주 상원 의회의 회계감사(2023년 2월 16일)에서 규제당국 NOPSEMA의 전 CEO인 Stuart Smith는 "(협의 절차가) 최소 며칠, 몇 달, 몇 년까지 걸릴지 모르지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하기도 함.

• 호주 연방법원 재판부에서 밝혔던 사업자들의 시추 인허가는 총 8공에 대해 2022년~2025년까지 시추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이었음.<sup>22</sup> 이미 6개월 넘게 사업이 연기되고 있고 언제 재개될지 모르는 현 상황에서, 기존 계획대로 진행해서 목표했던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점치는 어려워 보임.

2. 에너지 안보에도, 기후 대응에도 기여하지 못하는 바로사 가스전

• **(블루수소 생산)** 바로사 가스전 사업은 화석연료 중심의 수소 경제 계획<sup>23</sup>을 구상 중인 한국에서 추진되는 첫 대규모 '블루수소' 생산 사업임.<sup>24</sup> SK E&S의 계획에 따르면 수입 LNG의 대부분은 수소 생산에 활용될 예정으로, 현재 에너지 대란에 따라 논의되는 가스 확보와는 큰 관련이 없음. 따라서 바로사 가스전 사업을 둘러싼 우려는 에너지 안보가 아닌 화석연료 기반 수소 경제 구현의 비현실성에 초점이 맞춰져야 함.

한국을 제외한 주요 화석연료 투자 국가들이 공적 금융의 신규 화석연료 사업 투자 중단을 선언하고 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하는 현 상황에서 한국의 화석연료 중심 수소 경제 추진은 앞으로 수많은 난관을 마주할 수밖에 없음.<sup>25</sup>

• **(에너지 대란과 무관한 생산 시점)** 설령 도입한 LNG를 수소 생산에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바로사 가스전 사업 개발은 현재의 에너지 위기에 어떤 기여도 하지 못함. 성공적으로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첫 생산은 지금부터 2년 뒤인 2025년부터 가능할뿐더러, 사업이 이미 상당 기간 늦어져 이마저 불확실해졌기 때문.

국제에너지기구(IEA) 또한 신규 가스전 개발은 에너지 대란 해결에 도움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음. IEA는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가스 플레어링(flaring)이나 탈루 배출로 낭비되는 가스를 확보하거나 청정에너지 투자를 확대하여 가스 수요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음.<sup>2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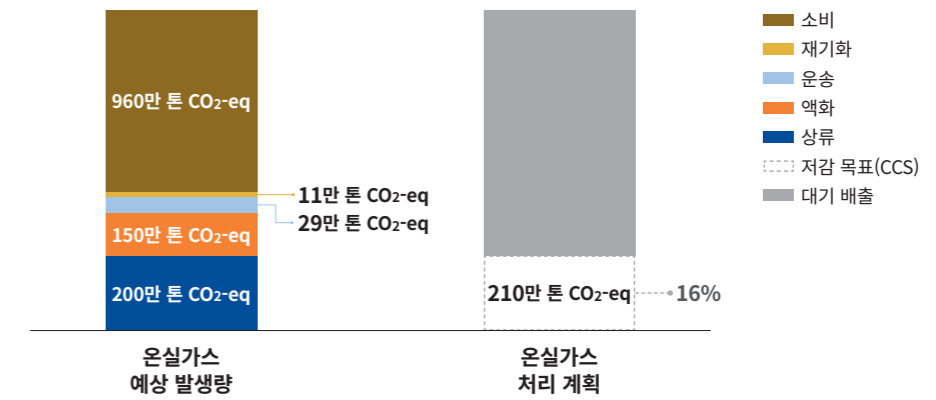
• **(기후위기 가속 우려)** 한편 바로사 가스전 사업 개발에 따라 향후 20년간 매년 1,350만 톤의 온실가스가 추가로 배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sup>27</sup> 사업주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CCS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감축 가능한 온실가스는 전체 배출량의 16%(210만 톤) 정도에 불과하며 CCS 가동에 따른 추가 배출량 산정 시, 저감효과는 사실상 없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위와 같은 사업자 측의 계획이 'CO<sub>2</sub>-free LNG'란 이름으로 홍보되자 위장환경주의(이하 '그린워싱') 논란이 불거졌음.

[Box] 바로사 가스전을 둘러싼 그린워싱 논란

SK E&S는 바로사 가스전 사업에 대한 최종 투자 결정(2021년 3월) 이후, 별도 CCS 사업을 통해 'CO<sub>2</sub>-free LNG' 사업을 실현할 것이라고 주장함. 이전까지 바로사 가스전 프로젝트는 호주에서도 가장 탄소 집약적인 가스전 사업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SK E&S의 'CO<sub>2</sub>-free LNG' 홍보는 국내 언론과 기후 환경 단체의 큰 반발에 직면함.<sup>28</sup>

대한민국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국회의원은 금융 지원 기관 중 하나인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치를 입수해 전체 배출량(Scope 3 배출량 포함 1,350만 톤) 중 16%(210만 톤)를 감축하겠다는 SK E&S의 계획을 공개함.

[그림 3] 바로사 가스전 사업 온실가스 배출 구성



출처: 대한민국 국회의원 장혜영 의정자료(2021)재구성

이후 기후솔루션은 SK E&S의 상기 광고를 과장광고 등으로 신고하였고, 국내 규제기관인 환경부는 "광고에 지속적 노출 시 소비자 인식 왜곡이 염려"된다며 '그린워싱' 우려를 표한 바 있음. 이에 환경부는 SK E&S에 "명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소비자에게 안내하도록" 행정지도를 내린 바 있음.<sup>29</sup>

SK E&S는 이후 'CO<sub>2</sub>-free LNG' 문구를 '저탄소 LNG'로 변경함.

#### IV. 멈춰선 신규 가스전, 커지는 금융기관의 책임

- 사업이 멈춰선 현 상황에서, 계속해서 바로사 가스전 사업에 금융을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 의사를 내비치고 있는 공공-민간 금융기관은 책임을 피하기 어려움

##### 1. 바로사 FPSO 금융, 금융기관 탈탄소화 가속에 따른 압박 증대

- 바로사 FPSO 건조를 위한 대출은 '21년 8월 계약 체결 이후 계속 인출되는 것으로 파악됨. 한국산업은행의 경우 2023년 2월 기준 계약 금액의 약 43%의 자금이(1,254억 원[USD 108백만]) 인출된 것으로 확인 되었음.<sup>30</sup>
- 하지만 바로사 FPSO의 용선주인 산토스 등이 사업의 주요 인허가를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대주단은 채무 불이행을 사유로 대출금을 상환받고 해당 계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됨.<sup>31</sup>
- 그간 금융기관의 기후 목표는 꾸준히 발전되어 왔음. 맥쿼리를 포함하여 바로사 FPSO 건조 사업 대주단으로 참여 중인 10개의 금융기관 중 Clifford Capital을 제외한 8개 기관은 바로사 금융 계약 체결 전후로 넷제로 은행 연합(Net-Zero Banking Alliance)<sup>32</sup>에 모두 가입하며 넷제로를 선언한 바 있음. UOB, Natixis, ABN Amro, Rabobank는 더 나아가 신규 석유-가스전 사업에 대한 투자 제한 정책까지 발표함.
- 대주단으로 참여 중인 금융기관들의 현 기후 목표를 고려한다면, 지연되고 있는 현 사업에 대해서도 금융 투자를 철회하라는 요구와 압력이 증가할 수 있음.

[표 2] 바로사 FPSO 대주단 넷제로은행연합(NZBA) 가입 여부 및 석유-가스 투자 제한 정책 현황

기관명	국적	NZBA 가입 여부	석유-가스전 투자 제한 여부
Macquarie Group <sup>33</sup>	호주	O	X
한국산업은행	한국	X	X
MUFG Bank <sup>34</sup>	일본	O	X
Sumitomo Mitsui Banking Corporation (SMBC) <sup>35</sup>	일본	O	X
United Overseas Bank (UOB) <sup>36</sup>	싱가포르	O	O
Clifford Capital	싱가포르	X	X
Oversea-Chinese Banking Corporation (OCBC) <sup>37</sup>	싱가포르	O	X
Natixis <sup>38</sup>	프랑스	O	O (비전통 석유가스전 및 전통 석유가스전 탐사 투자 제한)
ABN Amro <sup>39</sup>	네덜란드	O	O (비전통 석유가스전 투자 제한)
Cooperative Rabobank <sup>40</sup>	네덜란드	O	O (FPSO 포함 비전통 석유가스전 및 석유 탐사&시추 투자 제한)

##### 2. 공적 금융의 해외 위법 추진 사업 비호, 국제 사회 비판 마주할 것

- 사업주의 원주민 협의 경시로 인한 바로사 가스전의 인권 및 인허가 리스크는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던 문제임. 그러나 한국과 일본의 공적 금융기관들은 호주 원주민들의 우려 표명에도 금융지원 결정을 강행함.
- 결국 원주민들의 주장은 호주 연방 법원 항소심에서까지 받아들여져 바로사 가스전 사업 진행의 위법성이 인정되어 인허가가 무효가 되기에 이르렀음. 그런데도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은 승인을 철회하지 않고, 각각 2023년 1월과 2022년 11월에 승인 기한을 연장했음.
- 호주 사법부가 기존 인허가를 무효로 할 정도로 사업 추진의 위법성을 우려했음에도, 공적 금융기관들은 현지 사법부의 판단을 경시하고 사업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음. 이는 한국과 일본의 공적 금융기관이 내세웠던 ESG 경영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일의 주요 협력국인 호주의 사법 체계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외교적 비판을 피하기 힘들.



## V. 제언

- 본 브리프는 바로사 가스전 사업에 참여 중인 금융기관들에 아래와 같은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함.

### 1. 한-일 수출신용기관, 바로사 가스전 사업 금융지원 결정 철회

- 한-일의 수출신용기관들(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JBIC)이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처음 승인한 이후, 지난 1년 사업의 현실적인 여건은 상당히 불확실해졌을 뿐만 아니라 대주단이 승인 조건으로 내걸었던 현지 환경 규제와 국제환경 기준(IFC 성과표준, 적도원칙) 또한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짐. 금융 계약 체결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을 고려했을 때, 과거의 금융 지원 승인 결정은 철회되어야 할 것임.

### 2. 바로사 FPSO 참여 금융기관, 해당 대출 계약에서 빠져나올 것

- 사업의 인허가 리스크가 지속되는 한, 바로사 FPSO에 대출을 제공한 금융기관들에 대한 국제 시민사회의 압박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대주단으로 참여 중인 금융기관들의 기후 목표를 고려했을 때, 이미 진행된 투자에 대해서도 사업이 연기되거나 미뤄지고 있다면 해당 투자 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투자를 철회해야 할 것임.

### 3. FPSO-FLNG<sup>41</sup> 건조 사업 포함, 신규 석유·가스전 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 배제 정책 설정할 것

-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탄소중립 달성에 더 이상 신규 석유·가스전 사업 개발은 필요하지 않다고 발표하 바 있음. 또한 이미 전 세계 39개국의 공적금융도 신규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투자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음. FPSO와 FLNG는 해상에서 진행되는 신규 유·가스전 사업에 필수적인 설비로 대규모 자금 조달이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신규 FPSO/FLNG 설비에 대한 금융기관들의 투자 제한 정책 또한 도입될 필요가 있음.

## 참고문헌

- 1 한국무역보험공사 제출 자료(대한민국 국회의원 이소영)
- 2 아직 금융계약 체결이 이뤄지지 않은 관계로 환율은 2023년 3월 최신 평균 환율을 적용하였음.
- 3 천연가스(CH<sub>4</sub>)를 개질해 생산된 수소 중,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다량의 CO<sub>2</sub>를 일부 포집 및 저장한 수소
- 4 JBIC(2021). Loan for Acquisition of Stake in and Development of Barossa Gas Field Project in Australia <https://www.jbic.go.jp/en/information/press/press-2021/1227-015708.html>
- 5 한겨레(2022). '공적금융 8천억 지원 호주 바로사 가스전, '저탄소 약속' 지켜질까'. <https://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1045459.html>
- 6 Ibid
- 7 호주 기후환경단체들은 2021년 12월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우려 서한을 보냈으며, 2022년 3월엔 호주 원주민들이 직접 한국의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를 상대로 금융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국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음.
- 8 한국수출입은행 2022년 8월 제출 자료(대한민국 국회의원 장혜영)
- 9 한겨레(2023). '무보, SK E&S "호주 바로사 가스전" 금융지원 연장 논란'. <https://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1077035.html>
- 10 BW Offshore(2021). Announces Barossa FPSO equity joint venture partnership. <https://www.bwoffshore.com/pressrelease/2021/september/announces-barossa-fps0-equity-joint-venture-partnership/>
- 11 BW Offshore(2021). Signed contract for Barossa FPSO. BW Offshore. <https://www.bwoffshore.com/about-us/recent-news/news/2021/march/signed-contract-for-barossa-fps0/>
- 12 BW Offshore (2021). Company Presentation at Pareto Securities' 28th Energy Conference. <https://ml-eu.globenewswire.com/Resource/Download/58e1840a-ca10-458c-af98-7edec893f2d4>
- 13 한국산업은행 2022년 12월 제출 자료(대한민국 국회의원 강병원)
- 14 환율은 금융계약이 체결됐던 시점인 2021년 8월의 평균 환율을 기준으로 하였음.
- 15 Santos(2021). Santos Announces FID on the Barossa Gas Project for Darwin LNG. <https://www.santos.com/news/santos-announces-fid-on-the-barossa-gas-project-for-darwin-lng/>
- 16 THE GURU(2023). '호주 바로사 가스전 파이프라인 공사 연기 우려...상업 생산은 지장 없을 듯'. <https://www.theguru.co.kr/news/article.html?no=48689>
- 17 ABC News(2022). 'Santos loses Federal Court appeal over Barossa gas project after challenge by Tiwi Island traditional owners'. <https://www.abc.net.au/news/2022-12-02/nt-santos-loses-appeal-barossa-tiwi-island/101726772>
- 18 NOPSEMA(2023). General Direction 1898. <https://www.nopsema.gov.au/sites/default/files/documents/General%20Direction%201898.pdf>
- 19 BBC(2023). 'Energy giant Santos accused of Australia dolphin deaths'. <https://www.bbc.com/news/world-australia-64671695>
- 20 Santos(2022). 2022 Climate Change Report. <https://www.santos.com/wp-content/uploads/2022/03/220330-Release-of-2022-Climate-Change-Report.pdf>
- 21 The Australian (2022). 'Implications for Woodside Scarborough project thanks to court's ruling against Santos'. [https://www.theaustralian.com.au/subscribe/news/1/?sourceCode=TAWEB\\_WRE170\\_a\\_GGL&dest=https%3A%2F%2Fwww.theaustralian.com.au%2Fbusiness%2Fmining-energy%2Fwoodside-targets-4pc-growth-to-2027-amid-global-gas-volatility%2Fnews-story%2F87fad04ed9f684cd2e28c07243a4a9a5&memtype=anonymous&mode=premium&v21=dynamic-groupa-test-noscore&V21spcbehaviour=append](https://www.theaustralian.com.au/subscribe/news/1/?sourceCode=TAWEB_WRE170_a_GGL&dest=https%3A%2F%2Fwww.theaustralian.com.au%2Fbusiness%2Fmining-energy%2Fwoodside-targets-4pc-growth-to-2027-amid-global-gas-volatility%2Fnews-story%2F87fad04ed9f684cd2e28c07243a4a9a5&memtype=anonymous&mode=premium&v21=dynamic-groupa-test-noscore&V21spcbehaviour=append)
- 22 Federal Court of Australia(2022). Tipakalippa v National Offshore Petroleum Safety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Authority
- 23 한국 정부는 2030년 국내 수소 생산 목표 중 약 87%(169만톤)를 화석연료 기반 수소에 의존할 계획을 갖고 있음.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 24 중앙일보(2021). 'SK E&S, 호주와 친환경 가스전 개발... "블루수소 원료로 쓴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109641#home>
- 25 2021년 11월, 미국, 영국, 캐나다, 유럽중앙은행, 독일 등을 포함한 39개국 주요 금융기관 및 다자개발은행들은 2022년까지 저감수단이 없는 신규 화석연료 사업에 대해 투자를 중단하고 청정 에너지원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는 이니셔티브인 글래스고 선언(Glasgow Commitment)에 가입한 바 있음.

- 26 IEA(2022). World Energy Outlook 2022.  
<https://www.iea.org/reports/world-energy-outlook-2022>
- 27 한국수출입은행 2021년 10월 제출 자료(대한민국 국회의원 장혜영)
- 28 에너지경제-재무분석연구소(IEEFA)는 “바로사 사업은 이제까지 LNG 생산에 활용된 가스전과 비교했을 때 가스전 내 CO<sub>2</sub>(18%)의 비중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한 바 있음.  
[https://ieefa.org/wp-content/uploads/2021/03/Should-Santos-Proposed-Barossa-Gas-Backfill-for-the-Darwin-LNG-Facility-Proceed-to-Development\\_March-2021.pdf](https://ieefa.org/wp-content/uploads/2021/03/Should-Santos-Proposed-Barossa-Gas-Backfill-for-the-Darwin-LNG-Facility-Proceed-to-Development_March-2021.pdf)
- 29 한겨레(2022). ‘국감중인 겁났나... SK E&S ‘친환경 가스전’ 광고 뒤늦게 수정’  
<https://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1060554.html>
- 30 국민일보(2023). [단독] 산은, 시추 중단된 호주 가스전에 공적자금 3270억 대출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92012&code=11151100&sid1=eco>
- 31 한국산업은행(KDB)이 강병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바로사 가스전 사업의 주요 인허가 미취득은 채무불이행 사유가 되며, 용선주인 Santos 등은 대출금 상환 및 해지시지급금을 대주와 차주사 앞에 제공해야 함.
- 32 2021년 출범한 NZBA 이니셔티브에는 총 125개의 은행들(2023. 02 기준)이 가입되어 있음. NZBA에 가입한 은행은 2050년까지 투자 포트폴리오의 넷제로를 달성해야하며, 이니셔티브 가입 후 18개월 이내 포트폴리오 중 가장 탄소 집약적인 부분을 감축하기 위한 2030년 배출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함.
- 33 Macquarie(2021). Supporting the transition to a net zero economy | Macquarie Group.  
<https://www.macquarie.com/au/en/perspectives/climate-change/our-commitment-to-tackling-climate-change/supporting-the-transition-to-a-net-zero-economy.html>
- 34 MUFG(2021). Overview of MUFG Carbon Neutrality Declaration. MUFG.  
[https://www.mufg.jp/dam/csr/environment/cnd/cnd\\_en.pdf](https://www.mufg.jp/dam/csr/environment/cnd/cnd_en.pdf)
- 35 SMBC(2022). Net Zero Transition Plan.  
[https://www.smgf.co.jp/news\\_e/pdf/e20220513\\_04.pdf](https://www.smgf.co.jp/news_e/pdf/e20220513_04.pdf)
- 36 UOB(2022). Forging our net zero future.  
<https://www.uobgroup.com/sustainability/pdf/UOB-report-forging-our-net-zero-future.pdf>
- 37 OCBC Bank(2022). OCBC Bank joins Net-Zero Banking Alliance. OCBC.  
<https://www.ocbc.com/group/media/release/2022/ocbc%20bank%20joins%20net-zero%20banking%20alliance.page?>
- 38 Natixis(2021). TCFD REPORT 2021.  
[https://natixis.groupebpce.com/wp-content/uploads/2022/08/rapport\\_tcf\\_d\\_natixis\\_2021\\_eng.pdf](https://natixis.groupebpce.com/wp-content/uploads/2022/08/rapport_tcf_d_natixis_2021_eng.pdf)
- 39 ABN AMRO(2022). 2022 Climate Strategy & Targets.  
[https://assets.ctfassets.net/1u811bvgvthc/7Akmf4slo5WrZNxiMY0hV/f0225f443b9812808b26d208bc1a2755/ABN\\_AMRO\\_\\_\\_\\_2022\\_Climat\\_Strategy\\_\\_Targets.pdf](https://assets.ctfassets.net/1u811bvgvthc/7Akmf4slo5WrZNxiMY0hV/f0225f443b9812808b26d208bc1a2755/ABN_AMRO____2022_Climat_Strategy__Targets.pdf)
- 40 Rabobank Group(2022). Global Standard on Sustainable Development. Rabobank.  
<https://www.rabobank.com/en/images/sustainability-policy-framework.pdf>
- 41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 설비(FLNG)는 FPSO와 유사한 해상 가스전 생산 설비로, FPSO와 달리 천연가스를 액화할 수 있는 설비를 선박 위에 추가적으로 보유하고 있음. 이를 통해 해상에서 FLNG 설비로부터 운반선으로 LNG의 하역 작업이 가능해짐.



사단법인 기후솔루션(Solutions for Our Climate, SFOC)은 보다 효과적인 기후변화 및 대기오염 대응 정책 마련을 위해 2016년 한국에서 설립된 비영리법인입니다. 에너지·기후변화 정책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법률, 경제, 금융, 환경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국내외 비영리단체들과의 긴밀한 협력 하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바로사 가스전 FPSO 설비에 금융 제공 중인 은행들